

제14편 - 제3신앙촌시대(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7회)

-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제1부)
三. 144,000의 왕의 수
- 제14편
제3신앙촌 시대(제1부)
一. 제3신앙촌인 기장(機張)신앙촌
1) 1970년대의 한국의 상황
2) 제3신앙촌의 건설
- 二. 제3신앙촌은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함
1) '셋째울타리에 들어가면 '우리집'을 짓고 산다
2) 셋째문을 들어가면 황금종이 울리는 곳이다

제3신앙촌시대(제1부)

二. 제 3신앙촌은 완성자 출현을 상징

1) 셋째울타리에 들어가면 유리 집을 짓고 산다

앞의 글에서 유리집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격암유록에 유리집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글에서 알아보고 하였다.

격암유록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水晶造琉璃國...생초지락 수정조제유리국

이 말의 뜻은 "수정으로 만든 투명한 유리의 나라"가 아니라 수정과 같이, 유리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투명하게 되어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완성된 것을 말한다. 이 유리집과 같은 하늘 나라가 된 몸은 하나님의 나라(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 조희성님께서서는 그 세계에서는 마

음먹은 것이 그대로 보이는 세계라 누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죄를 짓는가 아닌가를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극락가에는 心化琉璃天國界(심화유리천국계) 즉 '마음이 투명한 유리처럼 변한 천국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세계가 곧 천국이라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리집이란 사람의 마음의 집을 말한다. 앞으로 완성된 세계는 유리와 같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릴 것이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집으로 이루어진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유리집은 셋째울타리의 주인공인 구세주의 출현으로 되기 때문에 영모님은 셋째울타리에 가면 유리집을 짓는다고 영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다.

영모님은 셋째신앙촌에 가면 유리집을 짓고 산다고 하셨지만 막상 셋째신앙촌에 가서는 "경기도 땅에 유리 된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하셨다(81.12.28). 그 말씀은 경기도 땅에 유리집의 주인공이신 구세주가 출현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2) 셋째문에 들어가면 황금종이 울리는 곳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경기도에 유리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다. 유리집은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집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이는 상태를 말한다고 풀이해야 한다. 구세주 조희성님이 역사하는 승리제단은 유리집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 이곳에서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그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죄 짓고는 못 사는 곳이다. (그림의 집은 유리로 지은 집이다)

영모님은 셋째문을 통과하고, 둘째문을 통과하고, 셋째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면 황금길을 닦아놓고, 황금종이 울리고, 천사의 노래소리 속에서 거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합동찬송가 304장을 소개하여 주셨다.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땅 있도다.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겠네. 문 하나씩 들어가서 천사와 같이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의 노래소리 들는가.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

나는 저 강 건너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 찬송가의 주된 내용은 문 하나씩 들어가서 황금종이 울리는 곳에서 천사와 같이 산다는 내용이다. 영모님은 이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계속 부르셨다.

영모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셋째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셋째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집을 짓고, 황금종이 울리고, 천사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늘나라로 완성된 그런 곳이 될 것이

라고들 생각하였다. 다들 셋째신앙촌, 둘째신앙촌, 셋째신앙촌을 들어가는 것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제3신앙촌에 가면 유리집을 짓고, 황금종이 울리는 낙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3개 신앙촌은 세 분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었다.

다. 영모님이 첫째문이 되시고, 해와 이긴자가 둘째문이 되시고, 아담이긴자가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면서 셋째문이 되시는 것이다.

이 완성자 구세주가 셋째문이 되시는데 금(金)운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금운이신 구세주가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곧 황금종(黃金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에 황금종이 울린다고 표현한 것이다. 금(金)운으로 오신 분이 널리 알리는 황금종소리와 같은 영생의 진리말씀을 전하시니, 곧 황금종이 울려서 널리 알리는 것이 되시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유리집은 인간들이 먹고 자는 그런 집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집인 인간들의 마음의 집을 말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이루어진 유리집은 구세주 하나님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3신앙촌에 가셔서 경기도에 유리집을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구세주가 경기도 소사에 출현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와 같이 설명을 하신 것이다.

제 3신앙촌은 셋째울타리요, 셋째문이고, 셋째신앙촌이요, 세번째로 구세주가 출현하신다는 뜻이요, 유리집이 되시고 황금종이 되신다. 이분이 나오시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완성된다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는 15편이 연재됩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42회

중입의 때(申酉戌亥年신 유술해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날짜를 표현하기 위해 10간(干)과 12지(支)를 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干支) 즉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썼는데, 천간(天干)이라고 하는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간(干)과 지지(地支)라고 하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12지(支)를 결합하여 격암유록에 예언된 연대기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세주가 출현할 때까지만 경전의 예언들은 유효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구세주 당시께서 임의로 집행하신다. 그러므로 격암유록에서는 절대예정(絕對預定)이 없고 수시다변(隨時多變) 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 필자 주

無用出世智將(一) 무용출세지장

二人橫三有一人 이인횡삼유일인 雙七尙向日義眞人 쌍칠향면일의진인 可女生 기여생

이인횡삼(二人橫三) 즉 부천(夫川)은 부천(富川; 고구려시대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불림)을 감춘 것으로, 부천에 한 사람이 있으니(有一人), 쌍칠향면(雙七尙面)은 七자 두 개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女)자가 분명하다. 이 분을 일컬어 왕의 딸이요 진인이라고 하는데, 가히 여자로 해산한 분이로구나!

※ 신약성경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매 곧 남자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묵시록 12:5)" 하는 구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여자로 상징한다.

一人鷄龍開國成功之臣 일인계룡개국기공지신

일인(一人)은 동방의 의인(義人)을 뜻하고, 계룡(鷄龍)의 계(鷄)는 주역(周易)상 음목(陰木)이요 용(龍)은 양목(陽木)으로 이를 총칭하여 양목(兩木)이라 한다. 그런데 목은 영적으로 의인(義人)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니 동방의 의인이신 영적 임마가 양목 즉 두 의인을 찾으시므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신(功臣)이 되었다는 뜻이다.

十人生產一男一女辰巳眞人 십인생산일남일녀진사진인 男女不辨 남녀불변

창조주 하나님(十人)의 신이 함께하신 박태선 장로님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 일남일녀(一男一女) 곧 아담(男)과 헤와(女)를 낳았다는 뜻이다. 일남(一男)은 성경적으로 둘째 아담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진사진인(辰巳眞人) 즉 조희성님이시다. 이분은 구세진인(救世眞人)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의인(義人)을 낳는 영적 임마의 역할을 하니, 남녀불변(男女不辨)이라 한다.

※ 진사진인(辰巳眞人): 궁을론(弓乙論)에 "靑龍之后女上加一(청룡지후여성가일) 拘驚羊喜五十八年(구경양희오십팔년)"의 내용을 해석하면, 청(靑)은 천간(天干)의 갑(甲)이요 용(龍)은 지지(地支)의 진

(辰)이다. 여(女)는 파자(破字)로 七七을 뜻하고 그러므로 7+7=14요, 가일(加一)이니 14+14=28 이 된다. 그러므로 갑진년(甲辰年)인 1904년 28년 후란 뜻으로 신미년(辛未年)인 1931년을 뜻하고 구경양희오십팔년(拘驚羊喜五十八年)이란 양띠로 오신 성인(聖人)이 58세가 되는 해에 기쁜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인(眞人)이 세상에 나온다는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에 해당하는 무진년(戊辰年)인 1988년에 58세가 되는 성인(聖人)이라면 같은 신미년(辛未年)인 1931년생에 해당되므로 진사진인(辰巳眞人) 조희성님의 탄강년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牛性在野非山非野 우성재야비산비야 非野仁富之間聖之出世 비야인부지간성지출세 三有辰巳 삼유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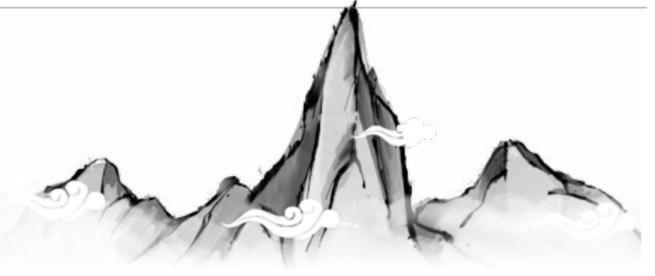
우성인(牛性人; 영적 임마)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에도 있지 않고 들에도 있지 않다. 들이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에서 성인(聖人)이 나오신다. 이분은 세 분의 신(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진사성인(辰巳聖人)이시다.

入於十勝三時中取 입어십승삼시중취 辰巳午未先動之反 진사오미선동지반 申酉戌亥中動之生 신유술해중동지생 寅卯辰巳未動之死 인묘진사말동지사 巳午未樂當 사오미락당

우성인(牛性人)이 계시는 십승지에 들어가는 데에는 세 가지의 시기가 있다. 진사오미(辰巳未末; 무진년에서 신

미년까지)에 해당하는 선입의 때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로 나갈 것이며, 신유술해(申酉戌亥; 갑진년에서 정해년까지) 또는 병신년에서 기해년까지)에 해당하는 중입의 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인묘진사(寅卯辰巳; 임인년에서 을사년까지)에 해당하는 말입의 때에는 십승지에 들어와도 죄(罪)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여 죽게 된다. 인묘진사말동지사(寅卯辰巳未動之死의 '사(巳)'와 사오미락당(巳午未樂當)의 '사(巳)'가 중첩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해로 보라는 뜻으로 을사년(乙巳年)이 된다. 그리고 을사년을 이은 오미락당(午未樂當)이란 병오년(丙午年)과 정미년(丁未年)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 위의 중간에 자축(子丑; 경자년과 신축년)이 빠져 있는데, 격암유록 궁을도개(弓乙圖歌)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失時中動 (실시중동) 부디마소 未動而死 可憐 (말동이사 가련)하다 白鼠中心 前後三 (백서중심 전후삼)을 心覺者 (심각자)가 누구런고"에서 白鼠中心(백서중심)은 흰 쥐의 해가 되는 경자년(庚子年)이 중심이 되어 전후삼(前後三) 즉 전삼(前三; 정유년에서 기해년까지)의 구원받을 시기와 후삼(後三; 신축년에서 계묘년까지)의 구원받을 수 없는 시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三豐兩白(삼풍양백) 찾지마소 無誠智者 (무성지자) 현수(現手)수고(수고)라 三豐之意(삼풍지의) 알려거든 三神山(삼신산)을 먼저찾소 三神山(삼신산)을 찾으려면 祈天禱神(기천도신) 안코될가 一家春風(일가춘풍) 분然後(연후)에 甘露如雨(감로여우) 나린다



네 一心合力(일심합력) 원 家族(가족)이 行住坐臥 向天呼(행주좌와 향천호)을 至誠感天(지성감천) 되올때에 弓乙世界(궁을세계) 들어가니 三豐兩白(삼풍양백) 이 곳이요 非山非野 十勝(비산비야 십승)일세"라고 산도 들도 아닌 십승(十勝)이 구원해 준다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 "黑虎以前中入之運 訪道者傳(흑호이전중입자운 방도자전)했으나"라는 末中運(말중운)의 구절은 흑호(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 이전이 중입의 운이라고 도를 찾는 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렇게 격암유록에는 선입자와 중입자, 그리고 말입자에 관련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올 수 있다. 末運論(말운론)에도 "先入何時 辰巳未申(선입하시 진사오미) 中入生 中入何時 未申申酉(중입생 중입하시 오미신유) 末入何時 此運之後 未入者死(말입하시

차운자후 말입자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석하면 선입의 때는 임진년에서 을미년까지 4년간이요 중입의 때는 갑오년에서 정유년까지 5년간이며 정유년 이후에 오는 말입자는 죽는다는 뜻이다. 隱秘歌(은비가)에도 "先入者還心不覺(선입자 환심불각) 馬羊二七洪爐數(마양이칠홍연수) 中入者生何時定(중입자생하시정) 候牛六畜當運時(후우육축당운시) 末入者死 號免爭(말입자사호쟁) 天下紛紛大亂世(천하紛紛대난세)"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석하면 갑오년과 을미년에 돌아오는 선입자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병신년에서 신축년까지 이 6년간에 들어오는 중입자는 구원을 받고 이후 임인년과 계묘년에 들어오는 말입자는 죽게 되며 이 때는 천하가 분분하고 세상이 크게 혼란스럽다.*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